

사랑의 손짓으로 법향 전해요

바라밀현장

동국대 손짓사랑회의 '청각장애인 자활돕기'



◇손짓사랑회 회원들과 광림사 청각장애인들이 2월21일 중앙대 졸업식에서 '자활기금마련 꽃팔기'에 나섰다.

“꽃 사세요, 꽃 사세요.”
2월 21일 오전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 이날 학교앞에는 ‘목소리가 아닌 손짓으로’ 조용하게 꽃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꽃장사들은 광림사 연회복지원 청각장애인 불자들과 동국대 손짓사랑회(회장 안문남) 회원들. 다같은 꽃이지만 이들이 파는 꽃에는 남모를 뜻이 담겨있었다. 광림사 50여 청각장애인 불자들이 직접 만든 이 꽃은 그들의 자활을 돕기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광림사에서 장애인에게 꽃꽂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보영(48 보살)과 함께 다리가 불편함에도 자원봉사자로 나선 안영혜(52 보살, 청각장애인 불자인 허동섭(40)-정인순(39) 부부와 자녀 등 광림사 식구들은 연신 수화로 꽃을 사달라고 외친다. 안문남(22, 컴퓨터공학과) 회장을 비롯해 최형재(21, 경영학과), 이석찬(22, 컴퓨터공학과) 군 등 동국대 손짓사랑회 회원들은 비탈집이 역할과 집근 노릇을 하러 나왔다. 이날 자활기금 마련 꽃팔기 행사는 송실대에서도 동시에 펼쳐졌으며, 손짓사랑회 회원

들이 두곳에 나눠서 지원활동을 벌였다.
90년 동국대 유일의 장애인 봉사 동아리로 결성된 손짓사랑회는 5년뒤, 손짓사랑회 지도법사인 해성 스님(광림사 주지)이 95년 발간한 <불교 용어 수화집>으로 수화법회를 열면서 불교 신행단체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지금도 매년 100여 명의 신입회원들이 들어오지만, 이중 40% 정도는 이웃 종교인이나 무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손짓사랑회가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신행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불교 수화를 배우면서부터다.
손짓사랑회 회원들은 자체 교육 과정을 통해 불교 수화로 반야심경, 삼귀의, 사홍서원, 찬불가 등과 같이 법회 진행에 필요한 불교 수화를 익히는 것은 물론 <부처님 전신당>, <금강경>, <화엄경> 등을 수화로 읊는 연습도 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은 하심을 배우고 분별심도 펼쳐내며 신심을 기르고 있다.
또 1~2년간의 불교수화 교육을 진행하며 매주 광림사 연회복지원을 방문, 수화 봉사도 청각장애인의 법회 진행을 돕다보면 회원

회엄경 등 수화로 읊겨 전법 매주 광림사 법회 진행도 도와

대부분이 불자로 다시 태어난다.
‘손짓사랑’이라는 말만큼이나 아름다운 청년 동아리 손짓사랑회의 활동은 광림사의 청각장애인 돕기에 그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 조종교 종합학교인 서울 농학교를 비롯해 일반학교 수화특활 강사로도 활동하고, 청각장애인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동참하며 신행현장을 넓히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제 13회(2001년) 아산사회복지대상에서 청년봉사상을 받기도 한 손짓사랑회는 청각장애인 불자들의 연등축제와 수화연극, 하루차집 등 행사지원과 무료과외공부, 컴퓨터 교육지원 등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13년 전부터의 손짓사랑회의 최대 사업은 수화기초반을 여는 것. 3개월 과정의 기초반을 마치면 수료증이 주어지고, 수료식 때 수화공연을 한다. 자체적인 수화교육을 통해 불교수화 보급에 앞장서면서 불자 수화통역사 등의 배출에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손짓사랑회는 매년 수화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반인들의 수화사랑을 유도한다. 기초 수화강좌는 소정의 교재비를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림사=(02)2202-583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



손짓사랑회 안문남 회장
“편견없이 함께 나누는 삶”
“장애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편견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상(相)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들의 자활에 큰 도움이 될거예요.”

손짓사랑회 안문남 회장은 “다 종교 단체와 비교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적다”고 말한다. 몇 개 안되는 장애인 단체에도 불구하고 관심이나 후원은 아직 미미한 실정. 특히 흥익대나 강남대 등 일반대에서 수화를 교양강좌로 개설하고 있지만 불교계 종합학교에서는 아직 관련강좌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
“교양강좌로 불교 수화를 개설해 줄 것을 학교에 공식 요청해 수화 보급에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손짓사랑회 회원들은 관련 자료 수집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는 안회장은 “청각장애인과 수화교 대화를 하다보면 그들의 인생관과 불교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금강경 사구계와 함께 늘 잊지 않고 암송하는 선사의 계승 하나가 있다. 근대 한국불교의 거봉이라 할 수 있는 경허 선사의 계승이다. 내가 많은 계승 가운데 특히 이 계승을 좋아하는 까닭은 갖가지 치례와 뒤엀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열매를 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참됨과 거짓은 서로 모순된 가치이다. 인간은 이 두가지를 속에서 언제나 방황한다. 구도의 길을 걷는 수행자에게 있어 이는 더욱 큰 문제이다.
수행은 거짓된 증생의 세계를

간 스스로의 마음에 만들었을 뿐 마음 밖에 따오기 버리고 좇아가야 할 존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아주 없는 것일까?
여기에 들어있는 온갖 관념과 가치들을 비유한 것이고 안개는 미혹함과 어리석음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맑은 가을날이란 이와 같은 것들이 제거되고 난 참마음자리를 비유한 것으로 부처의 세계관 마음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페마 최된(미국 삼발라센터 원장) (1)

금강승 수행 성취한 최초 미국인

미국 문화 깊숙이 스며들어 대중의 마음에 외닿는 설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발라센터 원장 페마 최된(Pema Chodron) 스님. 페마는 ‘연꽃’이라는 뜻이고, 최된(최)은 ‘다르마의 햇빛’이란 의미다. 따스한 성품을 지닌 스님은 햇빛보다 더 은은한 화롯불 같은 분위기로 서구사회에 법음을 전하고 있다.
1936년 뉴욕에서 태어나 UC 버클리를 졸업한 스님은 티베트 불교에서 몇 안되는 비구니 스님이자 금강승 수행을 성취한 최초의 미국인이다. 7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 티베트 불교를 전파한 은사 트롱과 린포체를 만났고, 1974년 37세에 칼마파 린포체로부터 사미니계를 받았다. 3년후 칼마파 린포체는 비구니계를 받으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에서는 비구니계막이 끊어진 까닭에 페마 스님은, 도반인 프레다 베디의 조언을 받아들여 1981

“전통과 현대 조화 이룬 가르침” 평가

인간 변화 직시, 섬세하게 풀어내

년 홍콩에서 집단수계식을 통해 비구니계를 받았다.
스승인 트롱과 린포체로부터 북아메리카지역 사원 설립의 사명을 받은 페마 스님은 모금활동으로 83년 캐나다 노바 스코샤에 감포 사원을 세운 후 총무를 맡았다. 그러나 아메리카대륙 최초의 티베트 불교 사원임에도 감포 사원은 외면뿐 아니라 내면도 티베트 사원처럼 생기지 않았다. 아메리카 대륙에 필요한 것은 서구식 사원이자 티베트 사원이 아니라 트롱과 린포체가 처음부터 명시했기 때문이다.
28세가 될 때까지 미국 중상류층 가정의 딸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다가 변호사인 남편과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두었던 주부 최된. 버클리에 살면서 대학에 복학했다가 60년대 미국을 휩쓸던 히피문화에 끌려들면서 다른 남자와 불륜의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혼과 결혼이 이어지면서 서서히 자신이 원하는 것은 연인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출가의 결정을 가족들이 쉽게 이해했던 것은 아니다. 친정 부모는 황당해하며 반대했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쉽게 받아들였다. 히피문화가 성행하던 60년대에 10대가 된 자녀들의 눈에, 엄마의 행동은 시대가 원하는 여성



◇페마 최된 스님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 참이다 거짓이다 모두가 헛것일세 / 낙엽지고 안개 개인 맑은 가을날 / 언제나 푸르른 저 산을 보게

마음비추기 참·거짓 분별말고 진리 얻어야

버리고 참된 부처의 세계를 찾는 작업이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야 할 참됨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역시도 본래부터 허망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것은 모두가 인

경허 선사는 낙엽지고 안개 개인 맑은 가을날이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됨의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선 진실의 세계가 어디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낙엽이란 사람들 을 떠난 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참됨을 좇고 있는 자신의 마음속에 낙엽과 안개를 없앨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푸르른 저 산을 보게”는 참마음에 의해서 드

서들은 마치 선배의 자상한 목소리로 불교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쉽게 풀어주는 듯한 신뢰감을 준다고 한다.
“짧고도 긴 인생의 여정에서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을 때 진정한 보리심과 접할 수 있었다”는 페마 스님. 스님은 인간이 겪는 무수한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직시해, 삶의 다각적인 면을 생생하고도 섬세하게 풀어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속) 김재경 기자

신개발 영가위패단

영가위패의 중요점

- 혁신적인 기술로 최첨단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여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 자석과 특수가공 철판을 사용하여 탈,부착이 용이하며 수정이크릴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여도 변색되지 않고 깨끗합니다.
- 위패 한위 한위마다 연화문양을 조각하였고, 상단에는 달집 문양을 넣어 현대감각과 불교 미술적 조화로 콤팩트하고 정제합니다.
- 장소를 적게 차지하여 같은 장소에 많은 영가를 모실 수 있습니다.
- 특수 반도체 전구를 사용하여 반영구적이며 전기료도 거의 들어가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 위패 한위 한위마다 인등처럼 불을 밝혀 미려하고 정제합니다.
- 영구위패 및 우란 분절 또는 각종 행사에 사용됩니다.

孝 · 정성 · 사랑을 담은 간절한 서원을 올립니다.

의 장 등록 제 20819호
실용신안출원 제 15466호

인 등

안전하며, 편리하고, 디자인까지 완벽한 정심원 인등

- 일반 인등 - 석가, 관세음, 지장, 연꽃, 산신, 호롱
- 호박 인등 - 산신, 연꽃
- 크리스탈 - 연꽃
- 특수인등 - 삼존불, 주존불
- 특수반도체 전구 인등 - 지장, 관세음, 석가

옥 불

천연 옥가루를 이용, 압축 성형하는 최첨단 공법으로 기존 옥불 보다 더욱 청교하고 정밀하며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저렴합니다.

옥 불상 조성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종 류 - 석가, 관세음, 지장
- 크 기 - 5인치, 7인치, 9인치
- 108불, 500불, 1,000불, 3,000불, 10,000불

歸依三寶 하옵고 제방의 수행도량에서 求道의 길을 가시는 스님과 포교의 일선에서 衆生과 아픔을 같이 나누시는 스님들께, 그 동안의 수행에 祝願 올립니다.
저희 正心院에서는 거기에 보답하고자 첨단 기술과 철저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영가단 영가위패와 인등, 그리고 천연옥으로 만든 옥불상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수많은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기여하는 正心院. 다시 부를 수 있는 正心院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正心院 임직원 일동 합장

저희 정심원 제품은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유통을 줄이고자 불교용품점에 일체 납품하지 않고 사찰에 직접 보급합니다.

영가위패 · 인등 · 옥불 전문
正心院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번지
전화 031-724-0455 핸드폰 011-724-0455